

#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프랑스 프랑슈-콩테대학교 어학코스(CLA) 2024년1월 ~ 2024년8월 파견

##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a. 보험

- 저는 마이뱅크, 메리츠화재보험에서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기간은 총 6개월, 약 20만원 금액의 상품이었습니다.
- 유학생 보험 선택 시 가격과 기간, 그리고 국제학생증 발급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으므로 옵션을 잘 따져서 본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저런 불안감이 많아지면서 비싼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험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b. 비자

- 비자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한 후, 캠퍼스프랑스 면접을 보고, 추가서류 제출 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비자 취득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교환학생 합격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혹시 프랑스에 있는 동안 비자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무한한 인내심과 평정심을 가지고 비자 만료 세 달 전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c. 항공권

- 항공권은 적어도 몇 달 전, 최대한 일찍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한국에서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값이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행기표 가격을 비교해 보다가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하지만 비자 처리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개강일보다 너무 이르게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오전이나 오후에 프랑스 샤를드골공항(CDG)에 도착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 저녁이나 밤에 도착하는 경우,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루 묵고 기차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행기와 기차가 연착되는 경우가 많고 낮은 환경에서 혼자 많은 짐을 들고 움직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항공권은 왕복보다는 편도로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개월 교환학생으로 파견 나간 경우에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더 머무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 그리고 항공권을 예약할 때 기차표까지 함께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휴대폰에 SNCF 어플을 다운받아 TGV 기차를 예약하거나(추천), Flixbus 어플로 플릭스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브장송 기차역은 'Gare de Besancon Viotte'이고 파리 기차역은 (여러 역이 존재하지만) 'Paris Gare de Lyon'입니다.

#### 나. 필요 물품 (짐 꾸리기)

- 아래에 쓰여 있는 필요 물품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필수적인 물건들 : 프랑스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 (칫솔, 로션, 클렌징폼)과 옷, 1인용 전기밥솥, 멀티쿠커, 전기장판(또는 전기담요), 파견 기간동안 사용할 화장품, 멀티탭 (사진 참고), 간단한 식료품 (국블럭, 고춧가루, 맛소금 조금, 다시다), 해외결제용카드 (교통카드 기능 꼭 넣는 것 추천), 비상약 (타이레놀, 후시딘, 밴드, 여드름패치, 소화제, 파스, 버물리 ...), 수저통 (숟가락, 젓가락 세트), 수건 (프랑스 수건은 비싸고 질이 떨어짐), 생리대 (한 두 통 정도만 가져옴), 선글라스, 자물쇠, 휴대폰 스트랩 (혹시 모르니 2개), 부채, 우산, 증명사진, 보조배터리, 충전기 등
- 필수적이지는 않았지만 있으니 갖고 오니 편했던 물건들 : 헤어 드라이기, 어댑터 (프랑스는 한국과 비슷한 전압을 사용하여 프랑스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로 여행할 경우 필요/그림3. 참고), 손톱깎이 세트, 요리용 칼, 필기구 (비싸고 질이 떨어짐), 빨랫줄, 빨래망, 텀블러, S자고리, 주방가위, 일회용 나무젓가락, 요리용 나무젓가락, 편지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친구들 생일 때 써주기 좋고, 프랑스 편지지는 안 예뻐요ㅠ), 빨아쓰는 행주, 위생백, 비닐장갑, 휴대폰 공기계 (휴대폰 소매치기 당할 것을 대비하여 가져옴), 여행용 미니 샴푸/치약/바디워시, 화장실 슬리퍼 등
- 프랑스에 도착해서 사면 되는 물건들 : 밥그릇, 냄비, 도마, 옷걸이, 이불,

청소용품, 장바구니, 노트, 벌레 퇴치제, 영양제 등

- 팁 :

1. 프랑스 도착 직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쌀 2인분, 카레, 라면 등 하루이틀정도의 비상식량을 싸왔는데 실제로 저는 비자가 늦게 나와 기숙사 배정이 늦어져서 프랑스 도착 직후에도 3일 정도 호텔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비상식량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2. 해외결제용카드는 분실, 및 소매치기 대비용으로 2개 들고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카드 잃어버리면 정말 멘붕에 빠집니다. (경험담..)  
저는 트래블로그 카드 하나, 트레블월렛 카드 하나 이렇게 2개 갖고왔고 분산해서 들고 다니기는 덤!
3. 저는 선물용으로 줄 동전지갑 10개 정도 챙겨왔는데 친구들 떠날 때나 생일 때 주기 좋았어요. 먹을 것으로는, 약과랑 쌀과자 반응이 좋았고, 선물용으로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부채 추천드립니다.
4. 옷도 챙겨올 때 웬만하면 파견기간동안 잘 입고 버리고 갈 옷들로 들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휴대폰 소매치기 당한 친구들 말에 따르면 제일 슬펐던 부분이 사진을 잃어버린 점이라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라던지 '네이버 마이박스'라던지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해놓기 위해 프랑스 오기 전에 1년 정기간 클라우드를 결제하였는데, 사진도 백업해놓고 중요한 서류들도 백업해 놓기 좋았어요!
6. 하지만 짐이 많으면 몸이 너무 힘드니, 프랑스에서 팔지 않거나 가격차이가 꽤 나는 물건들만 한국에서 사오기 웬만한 것은 프랑스 와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언어 : 파리의 경우, 워낙 관광객들이 많아서 영어로 소통할 때가 많지만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씁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실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 파견 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단어를 많이 외우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문화 : 정말 자유롭습니다. 제모를 하던 안 하던, 문신이 있던 없던, 담배를 피던 안 피던, 남자를 만나던 여자를 만나던 프랑스 문화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워라벨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휴

가를 가는 기간을 피해 행정처리를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물가 :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 한국보다 비싸지만 마트에서 사는 경우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주로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기숙사 공용주방에서 같이 요리하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빵이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기 때문에 빵집에서 빵은 꼭 사드시기를 바라요.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 저는 프랑스 '브장송' 교환학생 어학코스를 지원하였습니다.
- 하지만 브장송을 지원했다기보다는 프랑스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다만 프랑스어 관련 학과가 아니었다보니 정보도 없고 프랑스어 자격증도 없어서 제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을 선택하여 브장송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나-2. 공항 - 학교 (2024년 1월 기준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1. 파리 샤를 드 골 공항(CDG)에서 RER 타고 파리리옹역 (Paris Gare de Lyon) 가기

- 파리 샤를 드 골 공항 :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거친 후 수화물을 찾습니다.
- 수화물을 잘 찾았으면, RER을 타고 파리리옹역에 가야하는데 Information 표지판에서 본인이 타야하는 RER을 확인한 후, 공항 표지판(그림1. 참고)을 따라갑니다.

ex. 표지판에 터미널1에서 터미널2로 이동하라 하면 그렇게 이동하고, 셔틀트레인을 타라고 하면 셔틀트레인을 타면 됩니다.

- 그렇게 표지판 계속 따라가다가 RER 티켓 파는 자판기에서 RER 일회용 승차권을 사고요. (그림2. 참고)

-승차권을 찍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와서, RER B를 타고 Châtelet Les Halles 역에서 내려 RER A로 환승하면 됐었습니다.

참고로 RER A는 노선이 중간에 갈라지는데 내려야 할 Gare de Lyon역은 갈라지는 노선 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는 RER A 타도 됐었어요.

2. 파리리옹역 (Paris Gare de Lyon) 에서 TGV 기차타고 브장송 비요뜨역 (Gare de Besancon Viotte) 가기

- Gare de Lyon역에 도착했으면 미리 예약해 둔 기차(TGV나 TER)를 탈 수 있는 Hall에 와서 (Hall 1,2,3으로 나뉘져 있음) 대기.

cf. 기차가 출발하는 시각보다 이삼분 전에 탑승게이트가 막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타시기를 추천드려요.

- 기차 잘 타고 브장송 비요뜨역에 도착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출구 (Sortie - centre ville 방향) 로 따라 나와서 버스를 타건, 트램을 타건, 택시를 타건 자유롭게 기숙사 가시면 됩니다.

cf. 버스 정류장이랑 트램 정류장 둘 다 역 바로 앞에 있고 (걸어서 2분) 해외 교통카드 기능을 넣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정류장에 있는 Ginko 자판기에서 브장송 대중교통 '1회권' 또는 '하루 무제한' 카드를 구매하여 탈 수 있어요.

- 보통 교환학생을 브장송으로 오게 되면 'Résidence Colette'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비요뜨역에서 L3버스 (Pole Temis 방향)을 탄 후 'Crous Université' 정류장에서 내려 accueil에 가 기숙사 방 열쇠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물에 위치에 따라서 'Crous Université', 'Campus Arago', 그리고 'U-sports' 정류장 중 가까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 팁 : 처음 도착했을 때는 조금 비싸도 환승이 없는 기차로 타시기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만약 환승있는 기차를 타셨을 경우, 환승하면 안 되는 곳에서 잘못 내리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플에 떠있는 환승 정류장 도착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고, 구글맵을 통해서 내 위치가 정말 환승 정류장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환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 (프로그램 과정)

- 개강일에 등교를 한 후, 불어 레벨테스트 (쓰기, 듣기, 구술)를 본 후 본인 불어 실력에 따라 반배정이 됩니다. 반배정은 크게 B1.1, B1.2, B2.1, B2.2, C1.1, C1.2반으로 나뉘져 있고, 각 반마다 인원수에 따라 Groupe으로 나뉘 집니다 (각 반마다 10~15명 정도).

- 개강하고 일주일 가량은, 어학원 적응 기간을 갖고 (도서관 사용 방법, 각 층 소개, 크레페 만들기...),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방학 일정 등 알려줌) 선택과목 수강신청을 합니다. 이때 선택과목 수강신청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강당에 앉아계신,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교수님께 이름을 적고 오면 됩니다.

#### 나-4. 기숙사 (홈스테이, 쉼어룸 등)

- 저는 한 학기 동안 프랑스 국립 기숙사 CROUS에서 머물렀습니다. 브장송에 있는 Crous 중 Campus Bouloie에 있는 Résidence Colette에 머물렀습니다.

cf. 브장송에 Résidence Colette 말고도 Crous 기숙사 Résidence가 많았지만, Résidence Colette는 브장송에 있는 국제학생들이 머무는 국립 기숙사였습니다.

- 제 방은 9m<sup>2</sup> 크기의 작은 1인실 방에 화장실은 있고 주방은 없어, 공용주방을 이용했고, 공용주방은 각 층마다 하나씩 있는데 인덕션 4구와 주방 싱크대만 있습니다. 탁자가 있기는 하지만 요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보다는 요리재료들을 올려놓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요리를 한 후 방에 가서 먹어야 했고요. 중간부터는 공용주방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며 요리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인덕션 1구짜리를 사서 방에서 요리해 먹었습니다.

- 만약 국립 기숙사 Crous 말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벌레, 공용주방, 기숙사 퇴거 등의 이유) 사설 기숙사 (Les Oiseaux, Cassotte), famille d'accueil, colocation 의 조건을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맞는 거주 장소를 고르시면 됩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 교내 활동으로는, CLA 내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고 (발렌타인, 설날, 크리스마스 등) 버스를 대관해서 브장송과 가까운 지역들 (디종, 스트라스부르크, 스위스 로잔,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 을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는 여행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교외 활동으로는, ESN (프랑슈-콩테 대학교 국제학생들을 위한 학생회?) 이 준비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봉사, 요리, 가라오케, 아뜰리에 등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고 ESN을 통해 프랑스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ESN이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나-6. 꿀팁 (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 Ginko : 징코는 브장송 대중교통입니다. 시내에 있는 Ginko를 찾아 가 징코 카드를 발급받은 후, 매 달 정기권을 충전하면 브장송 내에서 무제한으로 트램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 Flixbus : 프랑스 근처 유럽여행을 할 때, 비행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렴하게 플릭스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flixbus 어플을 다운 받은 후, 원하는 도시 (ex. Amsterdam)를 쳐서 버스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브장송에서 바로 가는 플릭스버스는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파리를 출발지로 설정한 후 찾아보시면 더욱더 많은 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 버디시스템 : 아무래도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같이 수업듣는 친구들 또한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현지 친구를 사귀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 버디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랑스인 친구와 함께 시내 구경도 하고 카페도 가서 수다도 떨고 친구의 버디와도 함께 만나서 놀며 프랑스인 친구들을 쉽게 사귄 수 있습니다.

#### 3. 여행 정보 (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 학기 중에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 브장송 근처 도시들은 학기 중 주말을 이용하여 여행하였고, 프랑스 근처 유럽 나라들은 바캉스 기간동안 다녀왔습니다.
- 브장송 근처 도시들로는 디종, 퐁타블리에, 안시, 벨포르, 낭시 등에 다녀왔고 프랑스 근처 유럽 나라들로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으며, 프랑스지만 조금 멀어 바캉스 기간 동안 다녀온 도시들로는 파리, 니스, 리옹, 보르도, 라로셴에 다녀왔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교환학생 오기 전에는 혼자 해외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막상 프랑스 도착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스스로 헤쳐 나가면서 내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프랑스어 전공이시면 무조건 프랑스로 교환학생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타

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입과 귀가 많이 트였고 혼자 프랑스어 공부도 하면서 프랑스어 실력이 일취월장하였습니다. 교환학생하는 동안은 한국에서의 걱정거리들 잠시 접어두고 여행 많이 다니고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5. 사진 자료 첨부 (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s



그림1. 파리 샤를 드 골 공항 표지판



그림2. RER 승차권 (CDG -> Paris Gare de Lyon) (11,80유로)





그림3. 프랑스 콘센트



그림4. 브장송 두 강



그림5. CLA와 두 강







그림6. CLA 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림7. Resto U (학생식당) 급식



그림7. Crous 기숙사 화장실



그림8. Crous 기숙사 방 내부